

News

케이뱅크, 내년 1월 상장 가닥...적정 몸값 산정 '골머리'

이코노미스트

재무적투자자(FI)에 내년 1월 상장 목표 전달

카뱅 주가 하락 · 시장 상황 고려하면 2~3년 밀릴 수도

카카오뱅크, 26주적금 금리 인상... 최고 연 7%

조선비즈

26주적금의 자동이체 성공 시 적용되는 우대금리 최대 연 0.5%p에서 최대 연 3.5%p로 인상

1인당 최대 30개의 26주적금 계좌 가입 가능

'공파예금' 줄어든 은행권...대출금리 더 오르나

뉴스1

10월 들어 요구불예금 잔액 29조원 감소...올해 전체 감소분의 41%

고비용 정기예금 늘면서 조달비용 증가...연말 8%대 대출금리 나올듯

'돈맥경화'에 은행 찾는 기업들... 한달 새 기업대출 9兆 급증

조선비즈

5대 주요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이 최근 한 달 사이 9조원 가까이 늘어남

은행의 기업 대출 급증에 따른 부실 위험 우려 목소리도 제기

한화생명 "5% 대 저축보험 검토 중"...생보사들 금리경쟁 이어갈까

조세금융신문

지난 8월부터 생보사들 4%~5%대 저축보험 출시·완판 행렬

시중금리 인상으로 은행에 고객 뺏길까...만기 고객 유치 차원

메리츠화재, '유사암 납입 면제율' 50% 축소... 내달 1일 시행

시장경제

단종은 아냐... 보험진단비 비중만 낮춰, 금융당국 거듭된 경고에도 눈치싸움 지속

지난 24일 영업현장에 최종 안내문 공지, "소비자 혜택 줄고 보험업 신뢰 하락 우려"

거래가뭄에 CP금리 또 연중 최고... "금주내 정책효과 가시화" 분석도

서울경제

A1급 CP 91일물 금리 4.63%, 정부 대책 발표 이후 38bp 상승

국고채 3년물은 31bp ↓ 진정세, 기관매수 돌아와야 안정 전망

허리띠 조여라...증권사, 판관비 감소세 뚜렷

뉴스1

실적 '반토막'에 판매관리비 감축...경비 지출 최소화

직원 성과급 · 영업 접대비 줄여..."리스크 관리 주력"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